

전주시, 향토기업 기 살리기 나섰다

강소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 ·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 현장시청 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등 추진

전주시가 지역 내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성장발판을 지원하며 향토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연중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시청 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달 중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50인 이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R&D(연구개발) 지원과 생산기반 공정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내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해 1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올해 선정된 △기술혁신 R&D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지원 분야 5개 업체 △생산기반 공정개선 지원 4개 업체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지원 19개 업체 △기업경영 비즈니스지원 1개 대학(20개 업체 지원) 등 총 48개 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이 높은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관내 기업을 발굴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카이스트는 이달 중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참여기업 공모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선정, 신상품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지원, 비즈니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무주읍 내도리 앞섬 마을에 복숭아꽃이 만개해 특별한 볼거리가 되고 있다. 내도리 앞섬 대는 설천면, 적상면 등과 함께 과육이 부드럽고 맛과 향이 짙은 만드넛복숭아의 주산지로 단단한 백도는 7월부터 8월까지, 부드러운 황도는 9월 중순까지 맛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 현장시청 2호로 출범한 기업지원사무소는 기업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밀착지원을 해오며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업지원 사무소 직원들은 관내 중소기업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기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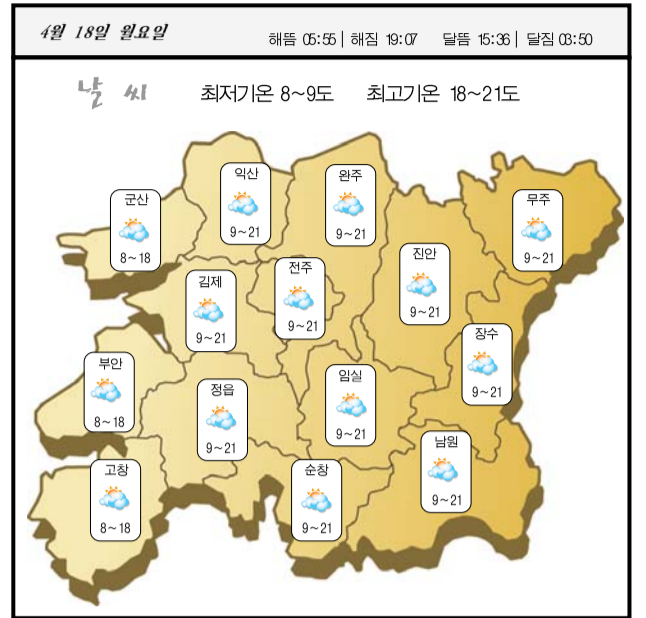
로 솔루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연중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우리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향토기업 등 관내 입주기업을 위한 소통 강화로 참여에 빠진 산업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향토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는 관내기업 대표들과의 공개오찬 간담회, 배식봉사, 제조현장 체험활동, 기업 CEO 특강 이벤트이 운영, 매월 주

요현안사업 연계 기업 방문, 온라인 기업 홍보관 운영, 연중 우수기업 선정·시상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과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현장시청 운영을 기반으로 한 우리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향토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순창고 학생, 노란리본 카드섹션

전교생 407명 참가

순창고등학교 학생 수백여 명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대형 노란리본을 만들어 눈길을 끈다. 순창고등학교는 지난 14일 학생회 주관으로 세월호 2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전교생 407명이 운동장에서 카드섹션으로 노란리본을 만들었다고 전북도교육청이 1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강당에서 세월호 영상을 관람한 뒤 추념식을 가진 학생들은 줄을 지어 운동장으로 갔다. 이들의 손에는 학생회가 나눠준

A4용지 크기의 노란색 종이를 들었고 학생회가 운동장에 미리 표시해 둔 줄을 따라 리본 모양으로 섰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노란 종이를 치켜들고 카드 섹션으로 노란 리본을 만들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했다. 이날 카드 섹션 행사 외에도 학생회 회장 서영탁(3년)은 각 교실 2층 창문에 기다란 줄을 매달아 학생들이 노란리본을 매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4월 한 달을 세월호 추념의 달로 지정했다. /고민형기자

“학생·시민 주도, 안전사회 만들어야”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학생과 시민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경용 걷는교회 주임사제 겸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장은 15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추모와 성찰을 위한 대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가, 국가의 시스템은 적절하게 설계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이사장은 "시민들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걸린 문제

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사회 감시원 역할을 하는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5월 중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사회 전반의 안전을 돌아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를 기록하다' 침몰 구조 출항 선원 150일의 세월호 재판 기록을 펴낸 오준호 작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청소원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안전에 대해 발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주기자

전주시, '문화·관광분야 사업제안' 공모

21일~5월 20일까지 'U-20 월드컵 개최기간 봄 조성방안' · '관광 상품 개발' 주제로

전주시가 2017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주시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기간 봄 조성방안 △전망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두 가지 주제의 문화·관광분야 사업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고 15일 밝혔다. 사업제안은 전주시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 및 제안을 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들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행정 실천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의 검토, 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제안 심사서 최종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제안 내용은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제와 다른 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공모 방식을 변경해 그간 시민과 대학생, 공무원 등 대상자별로 실시한 테마제안과 달

리 올리는 △문화·관광분야(4~5월) △생태도시·일자리창출분야(7~8월), 복지분야(10~11월) 등 특정 주제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제안 응모는 연령의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people.go.kr)의 공모제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우편과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접수를 원할 경우 전주시청 기획예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사업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기획예산과(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사랑스러운 도시 품격의 전주